

# 애플 첫 5G 아이폰12 곧 출시… 뒤늦은 추격, 효과 반신반의

라인업 아이폰12 미니 등 4개 예상 세계 첫 5G 상용화 轉서 성능 평가 대체로 전작보다 성능향상에 무게 모바일 시장 '신제품 전쟁' 치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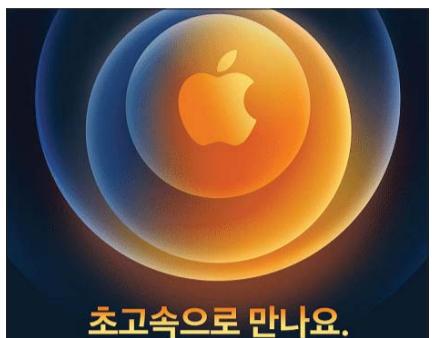
애플 아이폰12 공개가 임박했다. 아이폰에서는 첫 5G 모델로, 성능면에서도 전작보다 업그레이드 폭을 높힐 전망이다. 한국에 이달말 1차 출시될 예정이라 소비자 기대도 커지고 있다.

문제는 경쟁력이다. 경쟁사들이 플래그십급 보급형 모델로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 입지를 강화한 가운데,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폴더폰 등 새로운 품목 제품이 점유율을 높이는 상황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13일(현지시간) 아이폰 12를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모델은 국내에서도 맨 처음 출시될 예정이어서 기대감이 높다. 종전까지는 2~3차 출시국으로 뒤늦게 국내에 들어왔지만, 이번에는 1차 출시국이나 그에 준하는 출시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는 5G다. 시리즈에서 최초로 5G를 탑재하는 만큼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 한국에 먼저 출시해 성능을 인



애플이 글로벌 미디어에 전송한 초청장. /애플



갤럭시Z폴드2 톰브라운 패키지. /삼성전자



화웨이는 미국 무역 제재 속에서도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꾸준히 신제품 출시 계획을 내놓고 있다. /화웨이

정받겠다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고급 모델인 프로 맥스에는 28㎗ 초고주파 대역 안테나가 탑재될 가능성도 높다. 미니는 LTE를 유지할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라인업은 4개로 확정되는 분위기다. 아이폰12 미니와 아이폰12, 아이폰12 프로와 아이폰12 프로 맥스다. 가격은

미니가 700달러 안팎, 프로맥스가 1100달러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는 A14 바이오닉, 디스플레이는 전 모델에 OLED가 탑재될 것으로 보인다. 프로와 프로맥스 상위모델에는 후면 트리플 카메라에 3D 센서인 ToF 장착도 유력하게 점쳐진다. 120Hz 주사율을 지원할 수 있

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체로 전작보다는 성능 향상에 무게를 실었다는 평가다.

단, 예전과 같은 성공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근 스마트폰 시장이 다변화하면서 아이폰 브랜드 입지도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보급형 모델이 가장 큰 문제다. 삼성전자가 갤럭시S20 성능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가격을 700달러로 낮춘 팬 에디션(FE)을 출시하면서다. 6.5형 디스플레이에 후면 1200만화소 등 트리플 카메라, 전면 3200만화소 카메라 등 아이폰12 미니뿐 아니라 아이폰12, 아이폰12 프로와도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웨이도 오는 22일 신제품 플래그십인 메이트40을 공개하며 시장 방어에 나선다. 비록 미국 무역제재로 큰 폭의 성능 향상을 이루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5G 도입과 함께 자체 OS인 '홍명' 도입을 본격화하면서 중국과 유럽에 남아있는 고객들을 불잡아두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그나마 최상급 모델인 프로 맥스는 상황이 나은 편이다. 사실상 경쟁 모델은 갤럭시 노트20 울트라로, 120Hz 주사율과 5배 광학줌 등 대체로 비슷한 스펙

을 갖고 있다. 디스플레이가 6.7형으로 노트20(6.9형)보다 다소 작지만, 노트20에서 삭제된 ToF 센서를 추가했으며 출고가를 기준으로 가격도 100달러 가량 저렴하다. 충전 포트도 USB-C로 바꾸면서 진입 장벽도 낮췄다.

그러나 플래그십 시장 전체를 보면 상황이 녹록치만은 않다. 삼성전자가 폴더폰인 갤럭시 Z 폴드2와 갤럭시 Z 폴립으로 '승승장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격이 각각 1999달러, 1380달러로 훨씬 비싼데도 꾸준히 판매량을 늘리고 있다. 오히려 '톰 브라운 에디션'과 같은 프리미엄 마케팅에 더 많은 수요가 몰리는 상태다.

LG전자가 최근 내놓은 '스위블폰' LG Wing은 새로운 품목으로 가격이 1000달러 수준에 불과해 복병으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아이폰은 고객 충성도가 높아 경쟁 모델에 크게 판매량 영향을 받지 않는 편"이라면서도 "아이폰의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가 최근 폴더블 폰 등 혁신 제품 출시로 다소 떨어진 만큼, 점유율을 지속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 아시아나, 분리매각에 계열사 구조조정 관심

"매각한다는 것 아닌 여부 검토"  
자율협약 6년만에 채권단 관리체제  
아시아나 지원, 혈세낭비 비판도

아시아나항공이 본격적인 분리매각에 나서면서 6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한 구조조정도 이뤄질지 관심이 제기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아시아나항공은 금호리조트의 매각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29일 아시아나IDT, 금호티앤아이, 아시아나 세이버, 아시아나에어포트는 NH투자증권과 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며, 향후 매각 관련 검토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금호리조트 지분은 각각 ▲아시아나IDT 26.58% ▲금호티앤아이 48.8% ▲아시아나세이버 9.99% ▲아시아나에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어포트 14.63% 등의 소유로 나누어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매각을 한다는 게 아니고, 매각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금호리조트는 아시아나항공의 손자회사다. 경기도 용인시 소재 36홀 회원제 골프장인 아시아나CC를 비롯해 경남 통영 마리나리조트 등 총 4곳과 중국 웨이하이 골프&리조트 등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골프장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시아나CC가 매물

로 적합해 가장 먼저 매각 대상이 됐다는 평이다.

이런 가운데 채권단 관리 체제하에 놓여있는 아시아나항공이 금호리조트를 시작으로, 전 계열사에 대한 분리매각과 함께 인력 감축도 검토할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HDC현대산업개발과의 딜이 무산됨에 따라, 2014년 자율협약을 종료한 지 약 6년 만에 다시 채권단 관리 체제로 들어갔다.

하지만 이미 한번 대규모 공적 자금으로 경영정상화를 이뤘던 아시아나항공을 다시 지원하는 것은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분리매각은 물론, 고정비 절감을 위한 인력 감축도 마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 제네시스 구독서비스 '스펙트럼' 리뉴얼

### 프로그램 선택의 폭 넓혀

제네시스 브랜드(이하 제네시스)가 GV80, G80, G70 등을 경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제네시스는 세단부터 스포츠유틸리티차(SUV)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경험할 수 있는 종합 구독 서비스 '제네시스 스펙트럼'의 혜택을 대폭 개선해 선보인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18년 12월 국내 시장에 첫 선을 보인 '제네시스 스펙트럼'은 월 구독료 납부만으로 제네시스 라인업의 차종들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내 최초의 차량 구독 서비스로, 고객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으며 올해 5월까지 시범 운영된 바 있다.

이번 '제네시스 스펙트럼'은 시범 운영 당시 결과를 토대로 서비스 운영 지역 및 차종, 프로그램 선택의 폭을 넓히고 고객 혜택은 더욱 강화해, 명실공히

국내 대표 차량 구독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회사는 기대했다.

'제네시스 스펙트럼'은 매월 189만원의 구독료를 내면 G80, GV80, G70 등 제네시스 차종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월 단위로 매번 구독을 갱신하는 기존 방식을 1개월, 3개월, 12개월 중 하나를 약정해 선택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으며, 1개월 약정 시 1회, 3개월 약정 시 2회, 12개월 약정 시 4회까지 기간 내에 차종을 자유롭게 바꿔 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3개월 이상 구독을 약정하는 고객에게는 월 구독료 할인, 프리미엄 방문 세차 서비스 제공 등의 추가 혜택을 더해 고객 만족도를 높였다.

또 '제네시스 스펙트럼'은 플래그십 세단 G90(지나인티)를 24시간, 48시간, 72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단기 대여 프로그램인 '데일리 플랜'도 도입했다.

/양성운 기자 ysw@

## 웨일 브라우저, IVI서비스 생태계 활성화 협약

네이버, 車환경 최적화 기술표준 적용

네이버가 제공하는 웨일 브라우저가 차량용 인포테인먼트(IVI) 솔루션 전문기업 드림에이스 및 세계적인 기술기업 콘티넨탈오토모티브코리아 등과 웹 기반의 IVI 서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협력한다.

최근 IVI 기능의 고도화와 함께 차량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지자, 자동차가 모바일 다음의 플랫폼으로 주목받으며 기존 완성차 기업에 더해 다양한 IT기업, 스타트업들이 해당

시장에 참여하며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IVI 서비스는 개별 차량에 맞춰 최적화가 필요했던 어려움 때문에 하드웨어의 고도화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은 모바일 기기의 앱을 활용하는 형태에 그치고 있었다.

반면, 웨일 브라우저는 운영체제(OS)에 제약을 받지 않고 디스플레이와 네트워크가 있는 장소라면 어디에서라도 원하는 서비스를 추가적인 노력과 비용 없이 손쉽게 구현할 수 있는 범용적이고 호환성이 높은 장점이 있다.



웨일 IVI 플랫폼 데모 이미지. /네이버

3사의 이번 MOU를 통해 향후 카세어링, 음식 팩업, 차량 내 결제뿐 아니라 식당 예약, 세차 등 많은 서비스 사업자들이 차량 내에서 손쉽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 직수정수기 등 3개 제품

SK매직은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트리플케어 식기세척기, 스스로 직수 정수기, 터치온 플렉스 하이브리드 인덕션 등 총 3개 제품(사진)이 우수 디자인으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산업통산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KIDP)이 주관하는 굿디자인 어워드는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라 1985년부터 매년 시행되는 국내 최고 권위의 디자인 분야 시장식이다. 상품



의 외관, 기능, 재료, 경제성 등을 종합 심사해 우수한 디자인을 인정받은 상품에 '굿디자인(GD)' 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